

33 일 봉헌 28 일

제 4 장 2 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하느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물으심으로써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죄의 댓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이며 그로써 모든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구출되었고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 드러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가 구원되었음을 깊이 인식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묵상해보기로 하자.

"십자가 아래에서 당신 아들 예수님의 희생과 똑같은 희생을 드신 통고의 성모님, 저희가 이토록 비싼 값을 치르고 구해졌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제 3 주 동안 매일 드릴 기도:

성령송가,

바다의 별,

예수 성심 호칭기도,

루도비코 성인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마리아 안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

1. 시작 기도 :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천천히 성호를 긋고 잠시 자신을 반성한 뒤 성령송가를 바치거나 성령에 관한 성가를 부른다.

성령송가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에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주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에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우리 맘 깊은 곳을 가득히 채주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우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 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맘 풀어 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칠은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2. 독서 : 아래 내용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거나 정독하면서 마음에 와 닿는 부분에서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잠잠히 생각해 본다.

1) 루가 복음 23, 33-49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열두 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에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래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로마서 5, 6-11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이를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자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2) 준주성범 제 4 권 8 장 1-2 항

1. 예수님의 말씀 : 나는 네 죄를 위하여, 벗은 몸으로 두 손을 십자가 위에 펴고 자기를 온전히 하느님 성부께 자유로이 바쳐, 내게는 아무것도 남겨놓은 것이 없이, 전혀 하느님의 마음과 화해시키는 제사가 되게 하였음과 같이, 너도 그렇게 매일 미사 때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하여 너 자신을 모든 능력과 정과 더불어 결정하고 거룩한 제물로 삼아 나에게 바쳐라. 너를 온전히 내게

맡겨두는 일에 힘쓰는 것밖에 내가 네게서 무엇을 더 구하라? 네가 너 자신이 아닌 그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상관치 않는다. 네 선물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요, 너 자신을 구하기 때문이다.

2. 너도 너 자신이 아닌 것을 다 차지한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않을 것과 같이 너 자신을 내게 바치지 않는다면 무엇을 주든지 그것이 내게 흡족할 수 없다. 너를 내게 바치고 하느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라. 이것이 곧 합당한 희생이 되리라. 보라, 나는 너를 위하여 성부께 나를 온전히 바쳤으며 또 나의 몸과 피를 양식으로 주어 온전히 네 것이 되고 너도 나의 것이 되게 하고자 하였다. 너는 아직도 네 안에 서있고, 즐겨 너를 나의 뜻에 맡기지 아니하면 완전한 희생이 못되고 나와 너 사이엔 완전한 결합이 없다. 그러므로 자유와 은총을 얻고자 하면 무슨 사업보다도 먼저 하느님의 손에 너 자신을 즐겨 바칠 것이다. 마음의 광명을 받고 자유를 얻는 사람의 수가 것처럼 적은 것은 자신을 온전히 희생할 줄 모르는 까닭이다.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루가 14,33) 한 말은 확실한 말이니,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 자신을 네 모든 정과 더불어 나에게 바쳐라.

3. 묵상(15-30 분) : 마음에 와 닿았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을 비추어보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묵상 전 기도

티없으신 동정 성모 마리아님,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께서 당신께 베푼 모든 은총에 대해
성삼께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드리나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 성부께로부터 저희에게 오셨으며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당신은 또한 저의 어머니시고
주인이시며 모후이시니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시고
저를 위하여 성령의 비추심과 사랑을 빌어주시어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더 잘 알고

더욱 사랑하도록 해주소서.

저는 당신께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당신과 함께 영원히

예수님께 속해 있기를 원하나이다.

오소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당신으로 채워주시고

제 안에 천상 사랑의 불을 붙여주소서.

아멘.

4. 생활 실천 : 묵상 중에 느낀 내적인 움직임이나 깨달은 점을 노트에 기록하고 그 내용에 따라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한다.

5. 묵주기도 : 환희의 신비를 바치면서, 나의 구원을 위해 엄청난 고통을 인내하시며 죽기까지 당신 자신을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청한다.(묵주기도는 다른 시간에 바쳐도 된다).

6. 마침 기도 : 묵상한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바다의 별** 기도를 바친다.

바다의 별

바다의 별이요, 하느님의 어머니시여

평생 동정이시며, 하늘의 문이시여, 하례하나이다.

죄인의 사슬 풀고, 눈먼 이에게 빛 주시며

악을 멀리 쫓고, 선을 구해주소서.

기묘하신 동정녀요, 가장 양선하신 이여

저희를 죄에서 구해, 착하고 조찰케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께 찬양과

그리스도께 영광과

삼위이신 성령께 같은 존경 있어지이다.

예수 성심 호칭 기도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하늘에 계신 천주 성부님

● 자비를 베푸소서. (다음은 같은 후렴)

○ 세상을 구원하신 천주 성자님 ●

천주 성령님 ●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

영원하신 성부의 아들이신 예수 성심 ●

동정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성심 ●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 성심 ●

영광과 위엄이 가득하신 예수 성심 ●

하느님의 성전이신 예수 성심 ●

지존하신 이의 장막이신 예수 성심 ●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신 예수 성심 ●

사랑의 불가마이신 예수 성심 ●
나눔과 베품의 그릇이신 예수 성심 ●
자비와 인정이 넘치시는 예수 성심 ●
모든 덕행의 원천이신 예수 성심 ●
지극히 찬미를 받으실 예수 성심 ●
모든 마음의 중심이요 임금이신 예수 성심 ●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고이신 예수 성심 ●
천주성이 충만하신 예수 성심 ●
성부의 기쁨이신 예수 성심 ●
풍부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성심 ●
죽은 이들의 희망이신 예수 성심 ●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는 예수 성심 ●
모든 이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예수 성심 ●
생명과 성덕의 샘이신 예수 성심 ●
저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성심 ●
극도의 모욕을 당하신 예수 성심 ●
저희 죄로 찢기신 예수 성심 ●
죽기까지 순명하신 예수 성심 ●
창에 찢리신 예수 성심 ●
모든 위로의 샘이신 예수 성심 ●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성심 ●
평화요 화해이신 예수 성심 ●
죄인들의 제물이 되신 예수 성심 ●

주님께 바라는 이들의 구원이신 예수 성심 ●

주님을 믿으며 죽는 이들의 희망이신 예수 성심 ●

모든 성인의 즐거움이신 예수 성심 ●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 저희를 용서하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 자비를 베푸소서.

○마음이 어질고 겸손하신 예수님

● 저희 마음을 주님 마음과 같게 하소서.